

주5일 근무제가 여가활동, 여가지출, 여가만족도에 미친 효과분석

양혜원*

본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실시라는 정책개입이 실제로 의도한 여가행태의 변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결과(intended policy outcome)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여가활동(activity) 및 여가지출(expenditure), 여가만족도(satisfaction)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빈도분석, 분산분석, 패널분석, 다항로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수면·휴식, 가사일' 등 소극적·수동적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창의적 역량발현이나 개발, 여가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경제학적 요인을 식별해내어 향후 성공적인 여가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자원(resources)의 제약, 즉 예산 및 시간의 제약조건(budget & time constraints)이 변화했을 때 인간의 행태(behavior)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가에 대한 해명은 경제학과 사회학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였다. 한편 이러한 예산 및 시간제약의 변화는 많은 경우 정부의 정책적 개입(governmental intervention)에 의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정책학의 주된 주제영역이기도 하다. 예컨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시행은 그들의 예산제약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소비와 저축, 노동(labor) 및 여가(leisure) 향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5일 근무제는 개인의 시간적 제약조건(time constraint)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된 정책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즉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의 감소(decreasing of work time)를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는 동시에 여가시간의 증가(increasing of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leisure time)를 통해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여가지출의 증대와 여가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중요한 예상효과였다.

그러나 여가시간제약의 완화가 곧바로 여가참여(participation)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개입으로 인한 개인의 시간활용(time use) 행태의 변화는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이라는 정책개입이 실제로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자 개개인의 여가활용 행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한 그로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정책개선 및 여가산업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4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로 주5일 근무제가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삶의 질에 예상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사 주5일 근무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총량적인 집계변수 위주의 효과분석에 불과하여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개별 행위자의 행태 변화(behavior change)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했으며, 1회적 측정에 그쳐 주5일 근무제도의 지속적인 파급효과 혹은 그 동태적 효과(dynamics)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여가활동(activity) 및 여가지출(expenditure)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여가만족도(satisfaction)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5일 근무제라는 정책개입이 실제로 의도한 여가행태의 변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결과(intended policy outcome)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책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여가에 대한 선행연구

여가(leisure)란 일이 배제된 자유시간, 즉 사회나 가정 혹은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활동으로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휴식, 기분전환, 지식의 확대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숙·심미영, 2004). 현대인의 여가활동에의 지속적 참여는 신체적·심리적 측면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한승엽 외)는 측면에서 여가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여가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여가는 일산생활에서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권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또한 일상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육체적·감정적·이성적 측면에서 새로운 창조적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휴식(relaxation)과 기분전환(entertainment), 그리고 자기실현(self-development)의 기능을 가진다(Danmazedier, 1967). 사회적 측면에서 여가는 여가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원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가 동반자와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교육적 경험을 갖게 한다. 즉 여가생활을 통해 세대간 혹은 세대 내에 사회화의 역할이 수행되며, 여가주체들의 공동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김정하, 1995).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여가는 여가주체의 인적자원을 향상시키고 관련 소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가관리 능력을 기르게 하며, 여가수요의 증대를 통해 여가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킨다(이윤정·정순희, 2003).

여가는 아래의 <표 1>에서 보듯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표 1>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

학자	활동유형	구체적 활동
Szalai(1972)	준여가 수동적 여가 완전여가	신체회복활동, 학습, 종교활동, 조직활동 음악감상, TV시청, 독서, 신문구독, 영화감상 관람, 오락, 사교활동, 스포츠, 휴양 등
Lutzin & Storey(1973)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	스포츠, 게임, 댄스 피크닉, 파티, 클럽 미술, 음악, 연극, 민속 등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등 독서, 창작, 체스 등
McKechnie (1974)	조작적 활동 공작적 활동 지적 활동 일상적 활동 스포츠 활동 매혹적 활동	자동차수리, 당구, 사냥 요리, 의상디자인, 뜨개질 영화구경, 음악감상, 독서 정원가꾸기, 일광욕, 친구방문 등 배드민턴, 야구, 축구, 조깅 등 양궁, 등산, 요트, 스키 등
Gofdon, Gait & Scott(1976)	감각적 쾌락추구 활동 창의적 활동 발전적 활동 기분전환을 위한 활동 긴장해소를 위한 활동	성교, 약물사용, 종교체험, 운동경기, 격정적인 춤 창작활동, 양육활동, 토의, 악기연주 제조, 독서, 학습, 심미적 활동, 관광, 여행 사교활동, 경기관람, 게임, 취미활동 조용한 휴식, 수면 등
문화관광부 (2007)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 취미·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	

자료 : 한승엽 외(2007)에 추가 및 재구성

Szalai(1972)는 여가의 유형을 준여가(semi-leisure), 수동적 여가(passive leisure), 완전여가(total leisure)로 나누었으며, Lutzin & Storey(1973)은 동기 및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으로, McKechnie(1974)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조작적, 공작적, 지적, 일상적, 스포츠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문화관광부(2007)의 여가백서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 취미·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가소비 및 여가활동에의 참여(participation)는 학습, 탐험, 발견, 창조 등의 지적요인(intellectual factors), 대인관계 등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성취, 도전, 극복, 경쟁 등 인지적 효능요인(competence mastery factors), 휴식적·자극회피 요인(stimulus avoidance factors) 등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나(Ragheb & Beard, 1983) 많은 경우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갖는다(한승엽 외,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적인 활동에, 남성은 주로 가정 외적·동적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수준과 소득수준의 제약으로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게 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신체적 여가활동, 교양활동 참여율이 높다(김애련·한내창, 1997).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교양활동, 취미활동, 자기개발에 더 많은 참여율을 나타내며(조명희, 1998) 전문직·경영직 종사자의 경우 적극적·정신지향적 여가활동이 많은 반면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소극적 여가활동이 많다고 한다(Dumazedier, 1967). 경제적 상태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저소득계층일수록 비신체적 여가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한다(이희범·한혜원, 2000).

한편 이러한 여가소비 및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적건 많건 간에 여가지출(leisure expenditure)을 초래하게 되는데, Dardis et al(1981; 1994)은 1972-1973년, 1988-89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레크리에이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소득, 가구주 연령, 인종, 교육수준이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Talbot(1989)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도시거주자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을 많이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도 김영숙(1989)은 총월수입, 부인의 직업, 가족 수를, 이성민(1992)은 가계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택소유 형태를 여가지출의 영향요인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이정연·심미영·김영숙(1997)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이란 여가활동의 선택 및 여가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이끌어내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지각 혹은 정서(Beard & Ragheb, 1980)로서 여가만족은 여가참여자의 연령, 성별, 여가기회에 대한 지식, 여가가치, 수입 및 여가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Riddick, 1986; Beard & Ragheb, 1980) Csikszentmihalyi(1975)의 몰입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에 맞는 여가활동을 할 때에 최고의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여가만족을 Beard & Ragheb(1980)에 의해 개발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 LSS)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LLS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의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형·박성계·이명옥(2000)의 연구는 부산시 400여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참여정도, 특히 활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향상됨을 밝힌바 있으며, 한혜원(2008)의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여가참여 형태, 특히 신체적 여가활동이 비신체적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 주5일 근무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가의 증대를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에 의존하는 비용 중심적 경쟁전략을 탈피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공유를 통해 고용확대 및 여가산업의 신규수요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일수의 증대로 고용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여가 라이프스타일의 등장, 가족들과의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한 보육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이 예측되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여가 향유의 격차로 인해 삶의 질 격차 확대와 계층간 위화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조현순, 2005). 이철원(2007)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 이후 여가비용이 중요한 참여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온라인 동호회, 온라인 게임 및 채팅 등 디지털 환경이 여가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한편, 여가개념의 적극화, 여가의 사사화(privatization)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격차에 의한 계층소외와 연령에 의한 세대간 소외 등 ‘여가소외 현상’이나 여가활동에 대해 심리적 부담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여가증후군’이라는 역효과 역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라는 정책개입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간 이루어진 주5일 근무제도 혹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크게 주5일 근로제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들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들로 나뉠 수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는 김홍배·임재영(2006)의 연구와 이종길·김동건·이문숙(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홍배·임재영(2006)은 주5일 근무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효용수준의 증가로 사회전체적으로는 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종길·김동건·이문숙(2007)의 연구는 실험설계를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내었다. 보다 포괄적인 실증분석연구로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7)이 펴낸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자들은 미실시자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 특히 문화·예술활동(9.9%), 관

광활동(16.9%), 스포츠활동(10.7%)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새로이 시작한 여가활동으로는 스포츠활동(40.6%), 취미·오락활동(29.0%), 관광활동(17.4%), 문화예술활동(7.2%), 휴식활동(4.3%), 기타사회활동(1.4%)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여가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부담(38.8%), 여가정보 부족(21.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후 생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중심형 여가활동(42.3%)과 자기개발(24.5%), 교우관계(7.2%), 주중업무효율성(6.9%)의 증가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행복의 정도, 여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50.3%), 월요일이 피곤(8.2%), 수입감소(7.2%) 등이 제시되었다.

〈표 2〉 주5일 근무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연구	연구의 초점	주요결과	연구방법 및 비교
Levin & Belous(1977) Ream(1990) Bohlander, Werther & Wolfe(1980) 정의선(2001) 이강욱·김희수(2001) 김홍배·임재영(2003, 2006) 임재영· 김재구(2003)	주5일제(또는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적 정(+) 의 효과 분석	여가시간 증가, 관광수요 증가, 여가산업수요증가,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정(+) 의 파급효과 발 생	동태모형, IO모형, 거시모형, 서베이 등
Nymoer(1989) Giorgio(1989) Bloch(1991) Hunt(1996) 이상목(2001) 남성일(2002) 백응기· 오완근(2002) 신관호 외(2002), 백응기·김창배(2002)	주5일제 혹은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적 부(-) 의 효과 분석	경기침체, 고용감소, 임금 및 재화가격 상승, 여가 시간 증가하지 않음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생활변 화, 주관적 평 가	주5일근무제로 여가활동, 생활, 행복,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에 긍정적 변 화	전국 만 10세 이상 남녀총 3,000명 2007년 5월-6월
이종길·김동건·이문숙 (2007)	여가시간, 활동, 여가만족, 직무만 족, 생활만족의 변화	주5일제 근무제로 여가 만족도, 직무만족도, 생활 만족도가 향상됨	대전시 공무원 106명 을 대상으로 사전사 후(2005년 5월과 10 월) 측정

출처 : 김홍배·임재영(2006)에 추가 재정리

III.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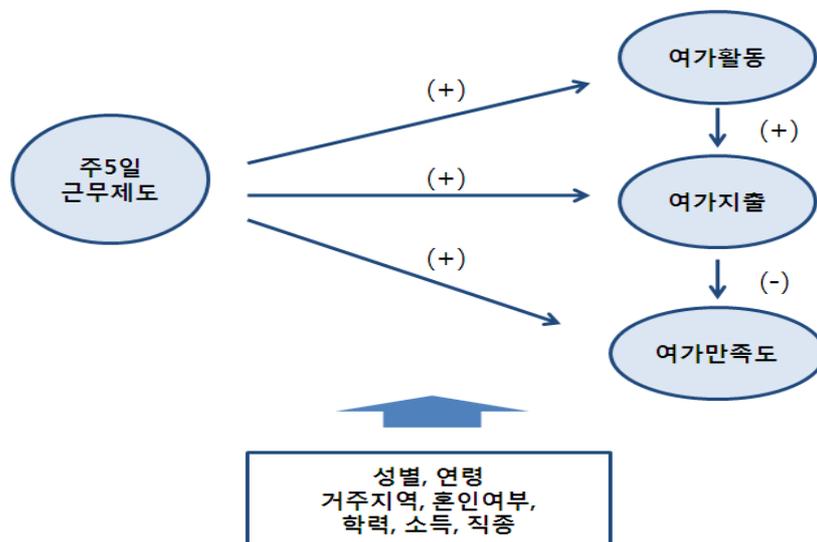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여가활동과 여가지출, 그리고 여가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차(2003년)-10차(2007년)까지의 노동패널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분산분석(ANOVA) 등을 수행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의 고유한 정책효과를 식별해내기 위해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패널분석(panel analysis) 및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2. 분석의 틀

주5일 근무제는 여가시간의 확대를 통해 여가활동의 증가, 여가지출의 증가를 통한 여가산업의 발전, 그리고 여가만족도의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여가활동, 여가지출, 여가만족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1] 분석의 틀



먼저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이에 대응하여 여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활동은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V시청이나 휴식'등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여행, 스포츠, 자기개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가지출의 증가는 여가를 향유하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로 여가만족도의 증가를 소폭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속변수인 여가활동, 여가지출, 여가만족도는 각 개인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여부, 학력, 소득수준, 직종 등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가지출 및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변수

가. 독립변수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주5일 근무제도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주 40시간 근무제라고도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 7월부터 1년 주기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정책효과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D=1)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이상은 미실시(D=0)로 보았다. 또한 1년 주기로 제도가 확장 시행될 때마다 그 효과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아 연도더미와 제도실시시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주5일 근무제는 주로 전일제 혹은 상용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임시직, 고용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되었다.

〈표 3〉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주40시간 근무제)

단계	시행기관
1단계(2004.7~)	공기업, 금융업, 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2005.7~)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2006.7~)	100인 이상 사업장
4단계(2007.7~)	50인 이상 사업장
5단계(2008.7~)	20인 이상 사업장
6단계	20인 미만 사업장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5일 근무제의 정책효과, 즉 여가활동, 여가지출, 여가만족도이다. 먼저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의 변화는 개인들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사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파악하였다. 여가활동은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TV시청 및 수면 등 소극적 여가활동’, ‘가사일 등 가족과 연계된 활동’, ‘여행, 오락, 사교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 ‘스포츠 등 신체적 활동’, ‘자기개발 및 추가적 소득활동 등의 지적·생산적 여가활동’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여가지출(leisure expenditure)은 ‘교양오락비와 외식비’의 합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여가지출액’과 ‘1인당 월평균 여가지출비율/월평균 생활비’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의 결과 얻게되는 여가만족도는 ‘여가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한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종속변수들은 각각 다른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여가활동의 유형 및 강도·빈도에 따라 여가지출은 변화할 수 있으며, 여가활동과 여가지출에 따라 여가만족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주5일제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여가지출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삽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 통제변수

주5일 근무제 이외에 여가활동, 여가지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종을 들 수 있다. 성별은 남성/여성, 연령은 만나이로, 혼인상태는 미혼/기혼/ 기혼이지만 이혼, 사망, 별거 등으로 혼자인 경우로,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광역시/지방으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대졸이하/대학

원재학 이상으로, 직종은 민간부문/공공부문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IV. 주5일 근무제의 효과분석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근로시간의 변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직장의 근로자, 즉 정규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수는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03년의 548명에서 2007년의 1,284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으로 주당 평균 정규근로시간 역시 2003년 49.7시간에서 2007년 47.3시간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여 2시간 가량 단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현재에도 정규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과다응답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가 형식적으로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4> 주5일 근무제의 도입 경향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주5일제 미실시	10,993	8,028	7,605	7,570	7,540	41,736
주5일제 실시	548	598	875	1,125	1,284	4,430
Total	11,541	8,626	8,480	8,695	8,824	46,166

<표 5> 주5일 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의 변화

(단위 : 시간/주)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정규근로시간	49.731	49.472	48.433	47.842	47.335	48.585

2.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2004년 노동패널 부가조사 결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하고 싶은 활동은 다음의 <표 6>에서 보듯 여행/관광/나들이(24.77%), 자기개발(16.87%), 수면 등 휴식(15.42%), 운동/스포츠(15.16%), 추가적 소득활동(1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활동은 애초에

하고 싶었던 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자기개발에 할애하는 시간이 25.25%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나 그 이후로는 수면 등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30%를 웃도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관광 활동의 증가 역시 약15%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희망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적 소득활동을 늘리고 싶다고 희망했던 이들이 11.96%였던 데 비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추가적 소득활동에 늘어난 시간을 할애한 이는 2004년의 4.07%를 빼고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2005년 이후부터는 가사일에 늘어난 시간을 활용한 비중이 약20%나 되어 많은 이들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집에서 가사일 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활동

(단위 : 명,%)

활동	근로시간 단축시 하고싶은 활동		근로시간단축으로 늘어난 활동							
	2004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추가적 소득활동	643	11.96	24	4.07	0	0	2	0.65	0	0
가사일	344	6.40	66	11.19	95	20.34	66	21.57	16	17.39
자기개발	907	16.87	149	25.25	65	13.92	38	12.42	11	11.96
수면 등 휴식	829	15.42	101	17.12	158	33.83	99	32.35	32	34.78
TV시청	63	1.17	11	1.86	11	2.36	13	4.25	4	4.35
여행/관광/나들이	1,332	24.77	106	17.97	62	13.28	27	8.82	15	16.3
운동/스포츠	815	15.16	83	14.07	58	12.42	47	15.36	10	10.87
오락/게임	23	0.43	6	1.02	1	0.21	2	0.65	0	0
사교/모임활동	227	4.22	28	4.75	13	2.78	7	2.29	2	2.17
사회활동/봉사활동	69	1.28	5	0.85	0	0	0	0	0	0
종교활동	94	1.75	5	0.85	2	0.43	2	0.65	1	1.09
기타	31	0.58	6	1.02	2	0.43	3	0.98	1	1.09
총	5377	100%	590	100%	467	100%	306	100%	92	100%

한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와 같다. 여성의 경우 늘어난 시간을 가사활동에 할애한 비중이 34%에 이르고 있으며, 남성들의 여가활동이 여성들에 비해 보다 다양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20대는 여행/오락/사교활동 및 자기개발/소득활동/사회활동에, 30대는 가사활동에, 40대는 스포츠 활동에, 50대는 휴식/TV/종교활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직종별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여가활동이 보다 다양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이 스포츠나 여행/오락/사교활동에,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휴식/TV/종교활동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중간계층의 경우 가사일과 자기개발/추가소득활동/사회활동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더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소득활동/사회활동의 비중도 31.49%로 거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여가활동이 지방에 비해 더욱 다양화되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저학력계층이 가사 및 휴식/TV/종교활동에, 대학원재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의 경우 스포츠나 자기개발/소득활동/사회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성별, 연령별, 직종별 여가활동의 변화

여가활동	성별		연령						직종		계 총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스포츠	180	18	0	21	68	74	34	1	112	86	198
	18.89	3.67	0	6.56	11.85	21.02	19.43	5.56	11.61	18.14	13.72
여행, 오락, 사교	181	88	1	71	105	62	27	3	194	75	269
	18.99	17.96	25	22.19	18.29	17.61	15.43	16.67	20.02	15.82	18.64
가사	72	171	0	30	123	59	29	2	170	73	243
	7.56	34.9	0	9.38	21.43	16.76	16.57	11.11	17.54	15.4	16.84
휴식, TV, 종교	310	129	2	108	166	93	61	9	295	144	439
	32.53	26.33	50	33.75	28.92	26.42	34.86	50	30.44	30.38	30.42
자기개발, 소득활동, 사회활동	84	294	90	112	64	294	3	294	198	96	294
	22.04	17.14	25	28.13	19.51	18.18	13.71	16.67	20.43	20.25	20.37
Total	953	490	4	320	574	352	175	18	969	474	1,4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χ^2	206.3429***		76.7589***						13.9418**		

주 : *p< .05 **p< .01 ***p< .001

<표 8> 소득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별 여가활동의 변화

구분	소득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계
	100 이하	300 이하	300 이상	미혼	기혼	기혼2	특별시	광역시	지방	고졸 이하	대재 이상	대학원	
여가활동	109	87	2	28	162	8	52	49	97	76	101	21	198
스포츠	14.25	13.24	9.52	7.73	15.65	17.39	16.67	12.07	13.38	16.7	11.72	16.94	13.74
여행, 오락, 사고	149	118	2	83	176	10	64	64	141	74	171	24	269
	19.48	17.96	9.52	22.93	17	21.74	20.51	15.76	19.45	16.26	19.84	19.35	18.67
가사	113	127	3	10	222	11	40	73	130	99	128	15	242
	14.77	19.33	14.29	2.76	21.45	23.91	12.82	17.98	17.93	21.76	14.85	12.1	16.79
휴식, TV, 종교	261	168	10	127	302	10	90	132	217	146	268	24	438
	34.12	25.57	47.62	35.08	29.18	21.74	28.85	32.51	29.93	32.09	31.09	19.35	30.4
자기개발, 소득활동, 사회활동	133	157	4	173	7	294	88	140	294	194	40	294	
	17.39	23.9	19.05	31.49	16.71	15.22	21.15	21.67	19.31	13.19	22.51	32.26	20.4
Total	765	657	21	362	1,035	46	312	406	725	455	862	124	1,44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χ^2	24.2967**			108.6502 ***			11.0328			46.2775***			

주 : *p< .05 **p< .01 ***p< .001

3.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에 미친 영향

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일인당 여가지출의 변화

일인당 여가지출총액 및 세부항목별 여가지출의 변화는 다음의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일인당 여가지출총액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집단의 경우 2004년의 4.94만원에서 2007년은 5.05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외식비와 교양오락비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주5일제를 실시한 집단의 경우 더 높은 여가지출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식비에 있어 주5일제 실시 집단의 경우 미실시 집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외식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결과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인당 여가지출의 변화

(단위 : 만원/월)

	일인당 여가지출총액			세부항목별 일인당 여가지출					
				외식비			교양오락비		
	미실시	실시	Total	미실시	실시	Total	미실시	실시	Total
2004년	2.84	4.94	2.98	1.78	3.19	1.88	1.07	1.75	1.11
2005년	2.79	5.08	3.02	1.68	3.18	1.83	1.13	1.96	1.21
2006년	2.94	5.13	3.22	1.82	3.40	2.02	1.14	1.80	1.22
2007년	3.28	5.45	3.59	2.05	3.45	2.25	1.24	2.04	1.36
Total	2.91	5.05	3.12	1.81	3.25	1.95	1.11	1.84	1.18
F 값	677.61***			737.54***			228.59***		

주 : *p< .05 **p< .01 ***p< .001

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지출비율의 변화

한편 월평균 생활비(일인당) 중 여가지출액(일인당)의 비율, 즉 일인당 여가지출비율의 변화를 기술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여가지출비율은 대략 전체 생활비의 5~6% 정도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5일제를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가지출비율이 2%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결과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주5일제 실시여부에 따른 일인당 여가지출비율의 차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Total
주5일제 미실시	4.90	4.49	4.63	4.66	4.78
주5일제 실시	6.87	6.84	6.69	6.44	6.62
Total	5.03	4.74	4.90	4.92	4.95
F값	551.86***				

주 : *p< .05 **p< .01 ***p< .001

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변화

여가만족도의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2점에 후반에서 3점대 초반에 머물로 있는 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집단의 경우 2004년 3.23을 기록한 이후 3.2점 대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여가만족도의 차이는 이원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주5일제 시행여부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

(단위 : 점수)

	2004	2005	2006	2007	Total
주5일제 미실시	2.99	3.01	3.01	3.05	2.98
주5일제 실시	3.23	3.24	3.22	3.27	3.22
Total	3.01	3.04	3.04	3.08	3.00
F값	316.90***				

주 : *p< .05 **p< .01 ***p< .001

여가만족도를 1-5점 사이의 점수가 아니라 불만(1-2점), 보통(3점), 만족(3점 초과)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볼 경우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표 12>를 통해 주5일제 미실시 집단의 경우 여가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비중(25.27%)이 더 많으나, 주5일제 실시 집단의 경우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중(36.69%)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주5일제 시행여부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

(단위 : 명, %)

	불만		보통		만족		Total
주5일제 미실시	10,395	(25.27)	20,435	(49.68)	10,300	(25.04)	41,130
주5일제 실시	631	(14.39)	2,145	(48.92)	1,609	(36.69)	4,385
Total	11,026	(24.22)	22,580	(49.61)	11,909	(26.17)	45,515
χ^2	399.7943***						

주 : *p< .05 **p< .01 ***p< .001

3. 패널분석 결과 주5일제가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에 미친 영향

그러나 이상의 분석은 개인의 여가지출 및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하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효과와 개인효과를 포함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변수들을 통제하고 주5일 근무제가 종속변수에 미친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에

사용된 기초통계는 다음의 <표 13>에 나타나있다.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text{여가지출} = \alpha + \beta_1 D + \beta_2 \text{Year} + \beta_3 D \text{Year} + \beta_4 \text{Sex} + \beta_5 \text{Age} + \beta_6 \text{Age}^2 + \beta_7 \text{Education} + \beta_8 \text{Region} + \beta_9 \text{Marriage} + \beta_{10} \log(\text{earning}) + \beta_{11} \text{Sector} + \mu_i + \lambda t + \epsilon$$

$$\text{여가만족도} = \alpha + \beta_1 D + \beta_2 \text{Year} + \beta_3 D \text{Year} + \beta_4 \text{Sex} + \beta_5 \text{Age} + \beta_6 \text{Age}^2 + \beta_7 \text{Education} + \beta_8 \text{Region} + \beta_9 \text{Marriage} + \beta_{10} \log(\text{earning}) + \beta_{11} \text{Sector} + \mu_i + \lambda t + \epsilon$$

D : 정책의 실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실시=1, 미실시=0)

year : 시간더미(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D * year : 정책의 실시와 시간더미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항

μ_i = 관찰되지 않은 개인효과

λt = 관찰되지 않은 시간효과

ϵ = 확률적 교란항

통제변수 : Sex(성별), 나이(age), Education(교육수준), Region(거주지역), marriage(혼인상태), earning(월평균소득), sector(공공/민간부문)

<표 13> 패널자료 기술통계

변수	단위	N	기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인당 외식비	만원/월	45932	2003-2008	1.949103	3.24399	0	80
일인당 교양오락비	만원/월	45923	2003-2008	1.182145	2.893731	0	125
일인당 여가지출	만원/월	46165	2003-2008	3.115214	5.018732	0	137.5
일인당 월평균소득	만원/월	46165	2003-2008	74.20629	91.42823	0	6923.333
여가만족도	likert	45515	2003-2008	3.004394	.7645287	1	5
연령	세	46161	2003-2008	41.858	17.97812	14	98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적합도를 검정해본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여가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패널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여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ooled OLS나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더미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 반면, 주5일제 실시와 시간더미와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로 인한 여가지출의 기울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4> log여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Pooled OLS		Fixed Model		Random Model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3.299	-21.110***	-44.433	-2.500	-2.791	-14.720***
독립변수						
주5일제 실시	0.094	2.410*	-0.013	-0.320	0.093	2.280*
주5일제* 2004	0.001	0.020	0.058	1.010	-0.011	-0.220
주5일제* 2005			0.044	0.890	-0.039	-0.770
주5일제* 2006	-0.058	-1.110	0.049	1.060	-0.052	-1.030
주5일제* 2007	-0.035	-0.680				
통제변수						
2004	0.071	2.540*	3.004	2.230*	0.060	
2005			1.927	2.150*	0.093	2.490*
2006	0.097	3.300***	0.976	2.170*	0.123	3.700***
2007	0.099	3.320***				4.720***
남성	-0.129	-7.010***			-0.120	-5.010***
나이	-0.008	-1.190	1.098	2.440*	-0.001	-0.120
나이2	0.000	-0.860	-0.001	-1.470	0.000	-1.460
특별시	-0.080	-3.630***	-0.031	-0.340	-0.074	-2.640**
광역시	-0.033	-1.680	-0.118	-1.160	-0.048	-1.860
고졸이하	-0.405	-10.140***	0.701	3.360***	-0.449	-8.780***
대졸이하	-0.192	-5.010***	0.218	1.580	-0.201	-4.080***
기혼	0.394	14.900***	0.141	1.790	0.373	11.500***
기혼이지만혼자	0.514	10.730***	0.391	2.540*	0.498	8.460***
log월평균소득	1.053	66.730***	0.509	17.850***	0.909	51.450***
공공부문	0.061	2.390*	0.125	1.960*	0.086	2.710**
R2	0.3564		0.0086		0.3549	

주 : *p< .05 **p< .01 ***p< .001

한편 나이가 많을수록, 고졸 이하의 저학력일수록, 기혼이지만 이혼, 사망, 별거 등의 이유로 혼자일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여가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혼이면서 혼자일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물질적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가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졸이하 근로자일수록 여가지출이 많아진다(+.701)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통

상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적극적 여가활동을 향유하므로 여가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ooled OLS나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여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나.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패널분석 결과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0.07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 뿐 아니라 Pooled OLS, 랜덤효과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제와 연도더미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고졸이하의 저학력 계층일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예산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만족도가 더 큰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나 저학력 계층이 더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흥미롭다. 앞서 교육수준별로 살펴본 여가활동의 양태를 살펴보았을 때 저학력 계층은 주로 소극적·수동적 여가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가활동은 적극적·능동적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ooled OLS나 랜덤효과모형 하에서는 저학력 계층이 고학력 계층에 비해 여가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나이가 젊을수록, 지방에 비해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들일수록,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일수록,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일수록 여가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젊을수록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의 혼잡비용과 지방에서의 여가시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냄으로써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혼자인 기혼자에 비해 더 큰 여가만족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동적·소극적 여가양태가 보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더 적은 경쟁 환경을 가지므로 여가시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여가만족도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Pooled OLS		Fixed Model		Random Model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2.549	23.240***	-2.874	-0.200	2.624	20.850***
독립변수						
주5일제 실시	0.184	6.620***	0.079	2.050***	0.176	6.560***
주5일제*2004	0.010	0.230			-0.001	-0.020
주5일제*2005			0.025	0.570		
주5일제*2006	-0.037	-0.980	-0.056	-1.270	-0.058	-1.660
주5일제*2007	-0.030	-0.800	-0.052	-1.160	-0.045	-1.290
통제변수						
2004			0.275	0.260	-0.045	-2.330*
2005	-0.021	-1.040	0.150	0.210	-0.062	-3.160**
2006	-0.019	-0.950	0.043	0.120	-0.054	-2.740**
2007	0.029	1.420				
남성	-0.041	-3.110**			-0.039	-2.530*
나이	-0.023	-5.060***	0.126	0.360	-0.022	-4.210***
나이2	0.000	5.510***	0.000	0.210	0.000	4.570***
특별시	-0.217	-13.820***	-0.025	-0.360	-0.202	-11.060***
광역시	0.073	5.120***	0.104	1.370	0.074	4.430***
고졸이하	-0.210	-7.280***	0.489	2.960**	-0.211	-6.250***
대졸이하	-0.078	-2.820	0.102	0.930	-0.076	-2.340*
기혼	0.039	2.090*	0.025	0.420	0.034	1.580
기혼이지만 혼자	-0.136	-4.060***	-0.067	-0.590	-0.136	-3.560***
log월평균소득	0.241	21.580***	0.124	5.710***	0.227	18.760***
공공부문	0.173	9.330***	0.024	0.480	0.168	7.900***
R2	0.1228		0.0025		0.1226	

주 : *p< .05 **p< .01 ***p< .001

4. 다항로짓분석 결과 주5일 근무제가 여가만족도에 미친 영향

앞에서의 분석은 여가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1점~5점까지의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진행한 것이지만, 실제로 Likert척도는 서열척도로서 그 등간성을 확신하기가 어려우며, 그 범위 역시 좁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분석은 여가만족도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가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불만/보통/만족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여가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가지출을 모형에 추가하여 여가지출의 변화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통(3점)을 기준범주로 할 경우 다항로짓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구성될 수 있다.

[모형 1]

$$\log\left(\frac{\pi_{\text{불만}}}{\pi_{\text{보통}}}\right) = \alpha + \beta_1 D + \beta_2 \text{Year} + \beta_3 D \text{Year} + \beta_4 \text{Sex} + \beta_5 \text{Age} + \beta_6 \text{Education} + \beta_7 \text{Region} \\ + \beta_8 \text{Marriage} + \beta_8 \log(\text{earning}) + \beta_9 \text{Sector} + \beta_{10} \log(\text{여가지출}) + \mu_i + \lambda t + \epsilon$$

[모형 2]

$$\log\left(\frac{\pi_{\text{만족}}}{\pi_{\text{보통}}}\right) = \alpha + \beta_1 D + \beta_2 \text{Year} + \beta_3 D \text{Year} + \beta_4 \text{Sex} + \beta_5 \text{Age} + \beta_6 \text{Education} + \beta_7 \text{Region} \\ + \beta_8 \text{Marriage} + \beta_8 \log(\text{earning}) + \beta_9 \text{Sector} + \beta_{10} \log(\text{여가지출}) + \mu_i + \lambda t + \epsilon$$

π_i : i 범주에 속할 확률

<표 16> 여가만족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불만		만족	
	회귀계수	z 값	회귀계수	z 값
상수항	-0.956	-2.140*	-2.447	-5.720***
독립변수				
주5일제 실시	-0.590	-4.840***	0.226	2.320*
주5일제*2004	0.120	0.650	0.147	1.020
주5일제*2006	0.166	1.020	0.058	0.440
주5일제*2007	0.021	0.130	0.001	0.010
통제변수				
2004	-0.133	-1.810	-0.032	-0.420
2006	-0.086	-1.110	-0.147	-1.800
2007	-0.173	-2.170*	-0.022	-0.270
남성	0.247	4.830***	0.070	1.430
나이	0.055	2.970**	-0.046	-2.610**
나이2	-0.001	-3.570***	0.001	2.680**
고졸이하	0.075	0.570	-0.660	-6.750***
대졸이하	-0.065	-0.500	-0.287	-3.120**
특별시	0.447	7.540***	-0.575	-9.240***
광역시	-0.074	-1.270	0.223	4.400***
기혼	0.328	4.180***	0.351	5.110***
기혼이지만 혼자	0.635	5.100***	-0.263	-1.760
log 월평균소득	-0.272	-5.360***	0.604	11.670***
공공부문	-0.376	-4.270***	0.352	5.730***
log 여가지출	-0.115	-4.660***	0.079	3.170**
Pseudo R2	0.0697			

주 : *p< .05 **p< .01 ***p< .001

분석결과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유의수준 .05에서 두 개 모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5일제 실시에 대한 계수 값이 두 모형에서 상반되므로, 주5일제의 실시로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낄 확률은 줄어드는 반면 만족을 표시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서울에 거주할수록,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민간부문일수록, 여가지출이 적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을 느낄 확률이 커지며,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여가지출이 클수록 여가생활에 만족을 느낄 확률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이 패널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가지출이 클수록 여가만족도가 커진다는 사실은 여가비용의 증가로 인한 만족도의 감소보다 여가지출로 인한 만족도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의 결론

2004년 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형식적으로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했던 정책결과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활동은 ‘수면 등 휴식’과 ‘가사일’ 등 소극적·수동적 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이나 여행·관광과 같은 적극적·능동적 여가활동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적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월평균소득수준이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인 계층이, 기혼에 비해 미혼이, 지방에 비해 도시거주자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여가활동이 더욱 다양화되고 적극화·능동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한 집단이 미실시 집단에 비해 여가지출 및 여가지출비율, 그리고 여가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NOVA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패널분석을 통해 인구사회경제적 효과를 통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 하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여가지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가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ooled OLS모형이나 랜덤효과모형 하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주5일 근무제라는 정책의 실시가 근로자 개인의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항로짓분석 결과 역시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근로자의 여가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1년 간격으로 단계적 시행을 함에 따른 영향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방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일수록 여가지출이 높아지며,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이나 지방에 비해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일수록, 여가에 대한 지출이 높아질수록 여가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이상의 분석을 통해 주5일 근무제라는 정책개입이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가활동의 변화를 통해 여가지출 및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반드시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작업장이 대다수로서 주5일 근무제도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활동 역시 '수면 등 휴식'이나 '가사일'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창조적 역량발전 및 개발의 기회 제공이나 여가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부수적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는 여가지출의 증가를 통해 여가산업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며, 여가만족도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2007 여가백서」에 의하면 여가활동 참여저조의 이유로 여가비용 및 정보부족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제약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마다 설립되어 있는 복지센터에 여가지원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근린공원이나 구시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의 시설 및 내용의 확충을 통해 이러한 제약요건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여가문화를 일소하고 refresh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여가관의 개선과 여가향유기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가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여가시간의 활용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상태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여가격차가 삶의 질의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성, 고령층, 지방거주자,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

자,저소득계층, 저학력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참여의 정도 및 빈도가 여가지출이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의 여가에 대한 시간활용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애련·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 김영숙.(199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심미영, (2004). 도시 가계의 여가오락서비스 소비지출구조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7(1).
- 김홍배·임재영(2006). 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한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분석. 「관광연구」. 20(3).
-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1).
- 이윤정·정순희(2003). 노인의 여가시간 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소비자학회」 14(4).
- 이재형·박성계·이명옥(2000).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1).
- 이정연·심미영·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여가생활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 이종길·김동건·이문숙. (2007). 완전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가 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2)
- 이철원.(2007). 주5일 근무제 이후 도시민의 여가향유 형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담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1).
- 이희범·한혜원.(2000). 노년기의 여가참여 형태와 여가만족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9.
- 조명희.(1998). 충북지역 노인의 여가생활분석-노인단독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7(1).
- 조현순.(200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관광상품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문명연지」 14.
- 한성수.(2001).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에 관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 「한국체육학회지」 40(2).
- 한승엽·김홍렬·윤설민·장운정.(2007).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2(3).
- 한혜원.(2008).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형태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3).
- 문화관광부.(2007). 2007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 Beard, J.G.,& Ragheb, M.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rch.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Dardis, R., Derrick, F, Lehfeld, A. and Wolf, K.E.(1981). "Cross-section Studies of Recreation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3).
- Dardis, R., Soberon-Ferrer, M., Patro, P. (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rch* 26(4).
- Dumazeid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Riddick, C.C. (1986),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 Talbot, M.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 for Entertainment Services". *Family Economics Review* 2(4).